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5강 : 설산수도상)

광주불교사무원 · 현대불교 공동주최
수진 스님(부산 해인정사 주지) / 11월 8일

부처님의 처절한 수행, 오늘날 시사하는 바 커

치열한 고행, 거짓된 나를 버리다

☞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도는 깨달음을 얻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을 해야 하고 학문을 얻기 위해서는 학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업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업(業)'이 있습니다. 업은 까르마로 '행위'입니다. 학업도 농업도 기업도 업이고, 노는 것도 업입니다. 노는 업에 길들여져 있으면 공부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업을 잘 걸러야 하는 것입니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천오백여년전 화사한 볼날 뜰바니 꽃동산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천상 천하에 오직 나 홀로 위대하니(天上天下 唯我獨尊)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一切皆苦 我當安之)." 여기에는 당시의 깨달음과 미래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면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수행할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고통받는 중생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위안만을 위해서 수도를 하는 것은 소위 소승에 빠져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자리와 이타가 함께 합니다.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성장하시면서 생로병사와 우주의 성주과공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2월 8일, 마부 차이를 앞세워 거룩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국왕을 포기하고 법왕이 되고자 첫발을 옮기신 것을 '설산수도'라고 합니다. 국왕으로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여도 모든 백성을 궁극적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왕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행복하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설산으로 수도의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무상을 깨닫지 않고는 즐거워서 수도를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상을 깨달아야

수도가 됩니다. 육체만 즐거웠다고 한들 진정한 즐거이겠습니까. 인생과 우주가 그대로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즐거워서 수도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수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무상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수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출가는 위대한 포기이고, 수도는 처절한 전쟁입니다.

수도의 전제조건은 우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고서는 절대로 수도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뺀 모든 인연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입니다. 왕위도 버리고, 아름다운 부인 아소다라도 버리고, 하얀색 옷도 버렸을 것입니다.

'믿음·용맹심·정진'은 수도자의 삼대요건 쉽게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수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여야 출가 수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고, 소중한 것이 남아 있고, 부인, 아들, 돈, 명예가 남아 있는데 즐거워서 수도가 되겠습니까.

설사 수도를 한다 해도 도를 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는 처절한 것입니다. 민중을 위한 처절한 결의를 견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을 위한 처절한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깨달음을 얻고 대해탈과 자유를 얻는 수도의 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돈 벌 수 있나요? 할 것 다하고는 기업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윤 남기는 기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갈 곳 다 가고 잘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박가' 칼라마, 라마뎨 등 소란한 성자를 찾아다니면서 도

를 뛰어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이라는 고도의 선정삼매에 들어갑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계 안의 일이니 삼계를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성자나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다가 어느날 니르나에서 목욕을 합니다. 돌아오던길에 수자타라는 소녀가 공양올리는 유미죽을 드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수자타 소녀에게 유미죽을 얻어드시는 순간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던 다섯 비구가 부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다섯 비구는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함께 수행

하던 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에게 유미죽 얻어드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고행을 이기지 못한 낙오자라고 비난하며 녹야원으로 떠납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선정에 들어 삼칠일동안 처절한 수행 끝에 12월 8일 새벽, 새벽을 보고 깨달으십니다.

이 순간 부처님은 일체가 유심조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삼생즉중생법생 심멸즉중생법멸(三生即中生法生 心滅即中法滅). 내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유심의 조각이라는 겁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 안에 있고, 성공 실패, 지옥 극락, 중생 부처도 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 이 셋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조각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탁 돌리면 극락세계가 목전에 있고,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님 세계가 눈앞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악인욕지 삼세일체불능(欲知了三世



11월 8일 열린 '빛고을아카데미'에서 수진 스님은 "부처님의 처절한 설산수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깊이 사유하고 진지한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이 계승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가장 먼저 설파하신 <화엄경>의 요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실체를 알라고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법계의 일체는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처절한 수행 끝에 '유심조'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은 우주실체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아는 것이 되고 그 부처님을 알았다는 것은 곧 부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하는데 첫째 조건은 확연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 둘째가 대용맹심입니다. 용맹이 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듯이 용맹심이 없는 수도는 제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부단한 정진입니다. 확연한 믿음과 대용맹심으로 끝없이 정진하게 되면 결국 깨달음의 세계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용맹심, 정진은 수도자의 삼대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 명의 수행자가 삼십년 수도를 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 스님은 안거를 앞두고 "이런 안거에서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죽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세명분의 한 철 식량과 갈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계에 앞서 남루한 노인이 찾아와 함께 정진하겠다고 청해요. 식량이 삼인분밖에 없어 세 스님은 노스님을 쫓아내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삼개월 동안 장좌를 외를 하기로 하고 수행중에 졸면 사정없이 장군죽비로 내리치기로 했어요. 결계가 시작되고 첫날부터 노스님의 몸은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노스님을 쫓아내기 위해 죽비를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전이 됐어요. 노스님이 세 스님을 때리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세 스님은 노스님에게 물어맞지 않으려고 억지로 잠을 참다보니 순식간에 한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해계 당일 노스님이 결망을 메고 떠나면서 세 스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식량도 모자라는데 함께 한철을 살겠노라고 해서 미안하고, 한철 공부 잘 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를 한바퀴 휘 돌리고 떠나는데 그 주장자가 푸른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세 스님이 탁 알아차립니다. 삼십년 수행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부처님은 속세의 인연 때문에 육년 고행이지만 이 세 스님은 속세 인연이 열약해서 삼십년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깨침이 부처님을 뛰어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나름대로 자유 행복을 그 순간에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사유와 관조가 부

족합니다.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똑같습니다. 깊이 사유하고 성찰함이 부족합니다. 고민하고 고뇌함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인지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유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처절한 수행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육년을 설산에서 수도하셨고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구년면벽 하였습니다. 수행을 하신다는 분은 기분이 육년 이상 수행을 합니다. 모든 것을 쉽게 빨리만 추구하는 오늘날 부처님과 수도자의 수행은 또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요. 무상합니다. 영화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없고, 권력 등 명예도 영원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삶이고 부처님께서 처절하게 수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을 냉혹하게 진단하고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산수도 모습은 처절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만 얻으려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처절한 수행을 보며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드리면서 법문을 마칩니다. **정리 · 사진·이준영 기자**

우리의 입장

현대 사회는 다변화, 급변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나아가 이러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불교상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단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을 이끄는 스님 가운데 몇몇은 개인의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종단은 물론 불교의 미래를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도나 갖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 14대 총회의원 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늘의 혼탁한 종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다.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가의 교육을 통해서 청정승가, 시대를 선도하는 승가, 미래를 준비하는 종단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불교에서 승보의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찬란한 불조혜명을 밝히는 근본인 것이다. 불교의 근본인 청정승가에 대한 교육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불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설정된 3대 정책사업을 완수해 나아가는 첫걸음 또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94년 개혁정신을 구태로 망각해가는 작금에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승가인이 경책의 준비를 들지 않을 수 없으리라.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우리 1500여 동문은 오늘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지금까지 승려 인재를 양성하며 종단과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기관으로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승가대학교의 운영예산 가운데 60%를 종단에서 지원하여 왔다. 종단의 예산은 거의 90%를 분담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찰재정의 악화로 분담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예산의 세입 증가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중앙승가대학교의 예산을 전적으로 종단이 담당하여 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단의 상황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술 및 교육 목적사업의 예산배정이 어려워, 편성된 예산에 따른 사업의 진행이 아닌 매월 종단전입금 수입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승가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학교의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의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봉은사는 종단의 각종선거와 정치세력간의 경쟁에서 이혜타산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종단과 봉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정치거래의 대상이 되다보니 종단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봉은사의 안정과 발전에도 장애 되어 한국불교 발전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봉은사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초는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교육불사 근본도량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함으로써 종단과 봉은사,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단

에는 예산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정치적으로도 맑아질 것을 확신한다. 또한 봉은사는 그간 정치적 변화로 겪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중의 안정을 가져 올 것이며, 아울러 기도와 수행과 불법홍포에 전념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며, 인적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봉은사와 중앙승가대학교의 사학협력력이 이루어지면 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찰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승속이 함께하는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불교 발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수직적이며 획일적인 종무행정구조를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공동의 공개운영으로 사찰운영의 모범을 보이며 동시에 불교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수·대학원생·학부생 등의 인적자원과, 학교 부설 연구소의 학술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봉은사를 신도교육과 승가교육의 중심지, 문화와 수행포교의 거점 도량, 사회복지와 승가복지의 핵심센터로 자리매김하여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승가인은 청정승가 구현에 앞장서자.
- ◇ 종단은 미래를 대비하는 승가교육에 투자하라.
- ◇ 종단은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 ◇ 종단은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라.